

생명존중 문화강화는 기독교의임무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생명존중 문화 강화는 기독교의 임무

다원주의가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주민 대부분이 함께 추구하는 가치들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인권, 평등, 자유, 정의, 민주주의 등이 그런 것이고 생명존중도 그 가운데 하나다. 비록 실제로는 충분히 존중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사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오늘날 전쟁과 전사자의 수가 줄었고 살인도 감소하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 재산, 부족이나 국가, 혁명, 등 다른 가치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도 과거처럼 빈번하지는 않다. 과거에는 노비나 하층민민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었고 2차 대전 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람에게 생체실험을 감행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강력한 본능적 욕구는 생존과 그것의 연장인 종족보존이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모두 본능으로 생존을 보존하도록 하 나님이 점지하셨다. 치열한 생존경쟁에도 불구하고 토끼나 거북처럼 공격무기도, 방어책도 없는 약한 동물들은 다산으로 종족을 보존하고 사자나 범처럼 강한 동물은 저출산 때문에 약한 동물을 멸종시키지 못한다. 요즘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이런 자연의 조화가 깨어져서 멧돼지가 주택가에 출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없는 지적 능력이



있어서 막강한 물리적 힘을 소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어떤 다른 생물도 인간을 멸종시킬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동종 살해를 대규모로 감행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수행하여 왔다. 심지어는 인간에 의한 인종의 전멸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에서의 생명존중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는 사실(Sein)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당위(當爲, Sollen)이며 자연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이기 때문에 자동적이지 않고 당위는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으므로 인류의 생존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명존중 문화는 무엇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요즘 생명존중의 문화가 약해질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된 핵무기만으로도 인류의 대부분을 살상할 수 있다. 그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핵무기는 오히려 핵전쟁을 저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역설적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핵무기 못지않게 더 위험한 것은 생태환경 오염이다.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대규모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앞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연환경 오염 때문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자연과학이 생명에 대한 신비감을 없애므로 살상에 대한 죄의식 혹은 두려움이 약해지고 있다. 현대

과학은 이미 생명체와 무생물의 경계선에 있다는 바이러스의 기능을 가진 유사생명체를 합성하는데 성공했고, 생명체 자체의 합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유전자 가위가 생명체의 성질과 생존방식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신의 영역'을 이미 침범한 것이다. 비록 꼭 짚어서 그 때문이라고 지적 할 수는 없지만 생명에 대한 신비감이 이렇게 제거 된 것이 이런 저런 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앞으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한 진화론 가설과 생명과학은 특별히 인간 생명의 독특성과 존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 진화했다거나 DNA 구조가 더 복잡하다 해서 독특하거나 존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채식주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간 생명이 과거보다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상대화되고 있다는 징조가 아닌가 한다.

계속 세속화 되고 있는 문화는 생명 그 자체보다는 삶의 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안락사와 낙태가 늘어나는 것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이나 신성성을 상대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유전공학과 더불어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풍조는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의 영역 안에 배치하는 것을 함축한다. 사람의 생명도 이제는 신성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금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그 자체로 옳은가를 차치하더라도 과

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돼지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인간의 존엄성이 계속 존중될 수 있을지, 인간 생명에 대한 모든 금기가 없어지고 스스로의 판단의 따른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신의 혹은 타인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 허용될 때 과연 생명과 '질 높은 삶' 자체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의심된다.

생명의 신비나 생존보존의 생물적인 본능에서 생명 존중 당위의 근거를 찾는 것은 너무 약하고 그런 근거에서 특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당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위'는 명령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만이 그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명령의 배경에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만 우리 생명이 온전히 보전되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살인, 낙태, 안락사를 피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전쟁 같이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문화의 중심부에 진입하는 성경적 방법일 것이다. 